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並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權奎進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荒木陸相과 國策

政界의 焦點移動

一

勿論日本의 非常時는 이미 어떤지 가오래요 오늘부터 새로히 시작되는 것은 아니겟지마는 最近에 이르러 그 非常時가 더 一層擴大되고 또 더 一層强化된듯 싶이 업지 안타 그것은 첫재 日英米 三國의 海軍競爭이 激烈히 展開되는것 둘재 米穀洪水로 農村의 人心이 極度로 不安한것 셋재 日本對岸인 福建省內에 赤軍의 勢力이 澎湃해 잇는 것 等으로 보아서 알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現下의 齋藤內閣으로서 果然 非常時內閣이라는 그 이름에 適副하도록 이와 가튼 局面을 넉넉히 處理해 나갈수 잇겟는가? 두 政黨의 틈에 끼이어 자칫하면 瓦解의 危險을 늣기고 잇는 만큼 모든 政策과 方針이 彌縫으로도 一貫해 온 齋藤內閣이어니 現局面擔當의 能力이 잇스리라고는 미더지지 안는다 오늘과 가튼 形便의 齋藤內閣으로서 現局面에 臨할만한 强力의 要素가 缺乏되엇 것은 事實이라 러어도 一定한 補强工事를 行하지 안하면 안될 것이다

二

齋藤首相은 國策樹立으로써 補强工事를 行하고자하야 政友 民政 國同의 三黨首 또는 貴族院各派의 代表를 會見하기에 이르렀스며 그와 同時 方今 各方面에 向하야 恒久策과 應急策 等 두 方面의 國策을 調査硏究하라고 命令하얏다 齋藤首相의 이와 가튼 補强工事가 果然 지금 어느 程度까지 進展햇스며 또 어떠한 形態로 産出될 것은 모르지만 아즉 가더서는 五相의 對立과 各自의 猜疑로서 큰 効果를 企待키 困難치나 안할가 생각된다 이러한 形勢를 압두고 지난 九日 荒木陸相은 高橋藏相과 會見하야 根本國策의 樹立을 披瀝하얏다고 한다 現內閣에 잇서 荒木陸相의 存在는 여러 가지의 意味로 異彩를 띄우는 바 그가 國策樹立을 爲하야 正面으로 나섯다는 것은 世人의 注目을 이을지 안할수 업다 本來 陸軍側으로부터 現內閣에 對하야 閣僚의 相反되는 感情을 가지고 잇섯다고 보이니 첫재로는 現內閣의 强力缺乏에 對한 不滿이요 둘재로는 政黨內閣의 策動에 對한 現內閣의 擁護다 지금 荒木陸相의 國策披瀝도 두 가지의 解釋을 나릴 수 잇는 것이니 現內閣을 消極支持하는데 긋치지 안코 積極的 應援에 까지 이르지 안는다면 現內閣의 强力缺乏을 指摘하야서 眞實한 非常時內閣의 産出을 暗示하는 것일 것이다 要컨대 現下 日本에 잇서 强力內閣의 出現은 거의 必然不可避의 現象이 아닐가? 오즉 남는 問題는 現內閣이 强力化하든지 現內閣을 대신하야 다른 强力內閣이 出現하든지 두 가지中에 잇는것이 아닐가?

三

그 强力內閣의 가질 바 國策으로 말하면 荒木陸相이 今番 披瀝한 그것으로부터 大槪 推知할 수 잇스니 위선 國論統一의 方法으로서 皇道精神의 積極的 振興 外來思想 全般의 阻止手段 强化 等을 들뿐이 아니라 政治及經濟機構와 朝野全機構의 根本的 改造 國家統制力의 擴張 等도 들엇고 또 軍事問題에 잇서서는 兵數決定 裝備充實 改變等도 論議되얏다고 한다 政治及經濟機構乃至 朝野의 全機構를 어떠케 根本的으로 改造하고 또 國家의 統制力을 어떠케 擴張하는 것인지 勿論 詳細한 條件에 이르러서는 아즉 드를 길이 업스되 結局 皇道精神의 積極的 振興과 外來思想의 阻止手段 强化라는 두 가지 基本思想으로부터 敷衍되야 나올것임에 틀림이 업다 政治의 强力化는 恐慌期에 들어온 이 世界에 잇서 各國到處에서 볼수 잇는 現象이니 日本한나라의 獨特한 企圖는 아니다 오즉 西洋의 파시슴을 가져 日本固有의 皇道精神으로 옴긴대 特異한 色彩가 업지 안타 이러하야 國策의 樹立으로부터 다시 國防豫算의 全部承認에 까지 進展되는 것을 보아 東京政局의 主潮가 陸相을 둘러 소용도리친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업다

未曾有의 軍部豫算 全部容認될 形勢

『國防이 第一』, 財政確立은 第二

政府에 正式提示

【聯合東京電話】 高橋藏相의 歸東을 따라 來年度豫算의 編成도 드듸어 九日高橋藏相과 荒木陸相의 重要會見을 筆頭로 繼續하야 十一日의 永井拓相, 三土鐵相 等 高橋藏相을 中心으로 한 各閣僚의 往來는 頻繁하여 젓는데 高橋藏相은 葉山에 向하기 前에 閣議의 席上에서 來年度豫算編成上의 困難을 豫期하고 새로운 編成方針으로 從來의 各省分取主義를 極力排擊하고 新規要求事項에 對하야서는 爲先 閣僚間의 折衝에 依하야 大綱을 決定할 것이라는 意見을 披瀝하야 閣僚의 諒解를 求한 일이 잇는데 齋藤首相도 이 旨에는 贊意를 表하고 잇슴으로 荒木陸相과의 第二次會見도 近近 行할 터이며 다시 第二次補充計劃에 對하야 大豫算으로 豫想되는 海軍豫算에 對해서는 高橋藏相은 極히 最近의 機會에 大角海相과 會見할 터로 모다 이것은 前記의 趣旨에서 出發한 것으로 보이며 實際豫算에 重大關係가 잇는 것으로 한후는 豫算과 必然的으로 關係잇는 國策問題도 아직 未解決대로 남어 잇슴으로 齋藤首相을 訪問하야 國策問題를 中心으로 한 豫算編成에 對하야 懇談을 遂할터이다 非常時國防에 尨大한 新規要求를 提出할 軍部와 財政當局의 折衝에는 迂餘曲折이 잇서 다시 政治的 解決 外지에는 幾多의 難關을 伴하리라고 보고 齋藤首相은 自身이 積極的으로 나아가 荒木陸相 大角海相과도 會見하야 一九三六年을 目標로 한 國防國策을 中心으로 하야 重要協議를 遂하기로 될 터이라고 보인다

藏相軍部折衝에 首相이 積極的 支援

【電通東京電話】 去九日 荒木陸相은 高橋藏相과 會見한 結果 長時間에 亘하야 內外諸般에 亘하야 非常時日本의 國際情勢關係를 詳述하야 現下國情에 對應할 國防의 完備를 期할 軍部豫算의 全部를 承認하기를 要求하엿슴에 對하야 高橋藏相도 諸般의 國際情勢로 보아 國防은 第一이고 財政確立은 第二라 하는 信念이 구더지게 되엿다 右에 依하야 荒木陸相의 進言과 自己의 所信으로서 齋藤首相을 鞭撻코저 高橋藏相은 十二日 午前九時十分 永田町首相官邸를 訪問하야 定例閣議에 압서 重要會談을 하엿는바 荒木陸相이 提示한 軍事豫算의 大綱과 한께 國策遂行의 方針에 對하야 傳하는바 잇섯다 이 會見에 依하야 荒木陸相의 國策으로 遂行함에 要하는 軍部豫算 全部의 要求容認도 當然 政府에 提示되엿슬 터이고 齋藤首相은 閣議에 上程하야 適當한 處置를 期치 안으면 안되게 되엿다

【時事漫畫】 =큐ー바騷動의 循環性= 한놈이 올나가면 한놈이 떠러지고 떠러진놈이 올나가면 우엣놈이 떠러저 빙빙도라가는 因果의 運動의 原動力은 英米資本의 鬪爭에서!?

北平軍事分會 軍備縮少決議

【聯合北平十一日發】 十一日午後의 北平軍事分會는 七時에 至하야 겨우 終了하엿는데 右와 如한 決議를 通過하엿다

一、遼東北軍의 于學忠 王以哲 萬福麟 何柱國의 四軍은 一個小隊에 對하야 三十名 合計 一萬人을 減하야 軍費四十萬圓을 節約하고 改編後는 各軍을 師團으로 할것

二、孫殿英 宋哲元 商震 龐炳勳의 四部隊로부터 軍費一萬圓을 減할것

그러하야 그 具體的 實行方法은 何等 決定을 보지 못하고 將來로 미루엇다

空軍五個年計劃 四個年만에 完了

一個年延長코 百臺建設新計劃

澎湃하는 米國空軍熱

【華盛頓發】 米國軍部當局은 空軍建設五個年計劃을 樹立하고 飛行機建造에 熱中하여 오든 中 同計劃은 極히 順調로 進展되여 開始한지 四個年만에 全프로그람을 完成하야 總費用 六千百七十七萬一千六百弗로 飛機一千六百七十一臺를 建造하엿는데 最近 列國의 軍備擴充競爭에 刺戟되여 이미 完成된 同計劃을 今年會計年度까지 延長식혀 建造費 三千萬弗로 百臺에 가까운 飛行機를 建造하기로 되엿다 過去에 잇서 米國은 海洋에 圍繞되여 잇는 關係로 別로 外敵侵入의 危險을 感치 안엇스나 最近에 이르러 列國間의 空軍發展은 事態를 一變케 하야 『리터래리 따이제스트』 紙上에 記載되엿거니와 가터 米國은 宣戰布告後 不過數日內에 航空母艦에 搭載한 敵國飛行機로부터 空襲을 맛게 될것이다 이 危險을 避할수 잇는 唯一의 方法은 航空母艦과 飛行機의 [illegible]를 包含한 海軍力을 擴充하는데 잇다』 고하야 海軍과 空軍과는 不可分의 關係를 갓고 잇는 空軍擴充必要를 高調하엿다

基礎工作中인 海外貿易省

通商參謀本部로서

【電通東京電話】 外務省栗栖通商局長은 通商審議委員會設置以來 商工省吉野次官 大藏省中島主稅局長과 諸問事項에 關한 重要協議를 거듭하고 잇든바 右는 諸通商條約改訂을 中心으로한 諸問案에 對하야 協議한 以外에 通商國策樹立에 關한 海外貿易省設置에 關한 基礎工作을 進行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右는 商工省貿易局과 外務省通商局을 合倂하야 兩省에서 各其 派遣한 商務官과 貿易通信員의 統一을 圖하는 同時에 日本의 通商國策參謀本部를 만들려고 하는것이다 目下 三省間에 諸問案의 大綱으로 考究되여 잇는 點은 右 海外貿易省에 通商部 貿易部 考查部의 三部를 置하고 通商交涉關係事務와 海外輸出入統制事務及海外通信網의 規格統一을 實現하려는것을 主眼으로 한것인데 通商審議委員會의 開催와 同時에 漸次具體化하리라고 觀測된다

國民黨은 어데로!

三角對峙의 國民黨

第五中全體大會를 압두고

分裂로부터 又復再分裂로

胡漢民의 秘活躍

【廣東通信】 南京에서 開催되려는 國民黨第五中央全體代表大會를 압두고 例의 反蔣運動은 廣東의 西南派를 中心으로하야 再燃될 氣勢를 보이고 잇서 對外關係의 一息을 뒤니어 南京政權의 頭痛거리의 新材料를 提供하고 잇다 廣東의 所謂 西南派는 =正確히 말하면 國民政府 西南政務委員會와 國民黨 西南執行部를 中心으로하야 結合된 廣東派의 人物들을 指함= 最近 國民政府가 十一月에 黨國大事를 決定하기 爲하야

第五次 中全大會를 召集할것에 對한 贊成 反對兩派로 分列되야 國民政府로부터 分裂된것만하야도 中國에는 統一된 政府가 업다고 中國의 政治的不統一을 例證하는 材料가 되어 對外外交에도 적지 안은 損害를 맛고 잇는 터인데 이 分裂된 分派가 다시 分裂이 되야 이케 이르러는 擧國一致로 國難에 共赴하는 國民的 意義에서 再昨年 滿洲事變勃發直後 十一月에 南北兩代表가 서로 各各 不俱戴天의 怨讎갓든 胡漢民, 汪精衛, 蔣介石의 三人合席을 信號로 上海에서 合하야 和平會議를 열어

形式上 이나마 南北一家가 된 外觀을 取하엿든 것이 數月이 못가 西南派는 完全分立된 形勢를 取하얏다가 이에 이르러 分裂의 再分裂로 發展하야 中國國民은 到底히 統一될 수 업는 印象을 外國人에게 주게 됨에 이르렀스니 人的 自然的 모든 點으로 中國의 國家的 存在가 더 말할 수 업는 危機에 잇는 此際에 이와 가티 各方으로 勢力이 離散되는 것은 寒心할 일이라고 一部에서는

西南派 의 統一만이라도 保持하자고 努力하는 모양이나 現在 西南派의 構成分子인 諸要人의 地位와 對蔣介石思想 其他關係로 그것은 到底히 바랄수 업는 事情에 잇다 卽 第五次全國大會는 不法이라고 反對하는 元老派乃至 文治派라고 볼 胡漢民 唐紹儀 鄒魯 蕭佛成 鄧澤如 等의 諸氏는 이에 對하야 廣東에서도 이 大會를 開催하자고 主張하야 全國에 通電하얏슴에 對하야 實力派라고 볼 陳濟棠 繆培南 蔡廷楷 等

廣東軍 의 領袖들은 廣東의 窮乏한 財政狀態와 全般的 不況關係로 捐稅가 減收된 事實과 또 共産軍의 猛烈한 進出이 廣東을 脅威하고 잇슴으로 이것을 肅淸하는것이 急先務란 理由로 南京與大會에 贊意를 表하야 이에 公然히 對立하게 되엿슴으로 元老派의 人物들은 陳濟棠 武人은 蔣介石에게 買收되엿다고 憤慨하야 大部分 香港으로 가서 蔣介石과는 氷炭不相容格인 胡漢民氏를 中心으로 期於히 五次全體代表大會를 따로히 召集하야 南京의 計劃이 國民黨의 統一된 決議形式이 아닌것을 表明하고 反蔣軍事行動의 再擧를 圖謀하고저 全國各地에 秘密히

遊說隊 를 派遣하고 또 秘密히 隱然中 南京政府의 處置에 不滿을 품고잇는 舊東北系統將領과도 連絡을 取하고 韓復榘를 건드리고 또 馬占山 蘇炳文 馮玉祥 等과도 先回의 失敗가 陳濟棠 等이 蔣介石에게 買收되기 때문에 由因된것이지마는 그 部下에는 相當한 反蔣勢力이 잇슴으로 大勢를 轉換함은 不可能의 일이 아니라고 露骨的으로 反蔣氣勢를 나타내고 또 麥棉借款 等의 成立을 通한 列强의 對中進出은

蔣宋等 의 포켓트를 두둑하게 하고 列强의 對中爪分政策을 誘導하고 이돈으로써 中國의 無責任한 武人들을 買收하야 民權을 無視한 蔣介石獨裁制를 合法化하려고 五次全國大會를 召集하는것이라고 宣傳하고 잇는바 이에 이르러 南方對西南派는 三角싸움으로 發展되야 그 展開如何는 十一月의 大會를 際하야는 國民黨의 免할수 업는 一大龜裂이 잇슬것으로 觀測된다

泰山에서 閑日月

馮將軍의 怪氣焰

中國의 彈力性을 自矜豪語

馮玉祥氏最近生活

【濟南通信】 國民政府 [illegible] 數人을 引率하고 慧의 하는짓에 不平을 품고 泰山의 祠堂에서 讀書와 沈思로 三年을 隱居生活을 하다가 今春에 突然 慧星과 가치 한번 張家口에 나타나자 舊部下 方振武 吉鴻昌 等과 連絡하야 民衆抗日同盟軍을 組織하고 迅風雷雨的으로 滿洲國版圖內의 多倫을 占據하야 모처럼 北中日中停戰協定을 해노흔 南京政府의 立場을 困難케 하고 이것을 信號로 하야 全中國에 抗日反蔣氣勢를 一時 再燃식힘에 成功하얏다가 四圍形勢 不利로 結局 南京政府의 『제발 그러지 마러 달나』는 交涉을 할수업시 聽從하고 多倫을 내노코 衛兵五十名을 데리고 七月中旬에 飄然히 張家口를 떠나온 馮玉祥 —— 通稱 크리스찬將軍은 그 一代의 風雲大望도 하는수 업시 다 바리고 最近 山東省政府主席 韓復榘의 極盡한 斡旋으로 다시 濟南에서 不遠한 泰山五賢祠의 閑隱居處로 도라와서 그 顧問格인 范銘樞로 더부러 讀書三昧 그의 有名한 早睡早起主義로 幽閑한 生活을 繼續하고 잇는데 馮氏는 이러케 閑雲野鶴의 歲月을 보내지마는 元來 人物이 人物인만큼 그래도 裡面으로 또 무슨 陰謀나 劃策하고 잇지 안은가 두려워하야 南京政府의 要人 陳公博 等 數人은 일부러 泰山까지 차저와서 或은 全國水利督辦 全國林業督辦 等의 職任을 주어 不平滿滿하야 언제 또 무슨 演劇을 꿈일지 安心 안되는 中國의 巨大한 慧星 馮將軍을 懷柔하야 安頓식히려고 하나 馮將軍은 아주 俗世에 진절이가 난듯이 一一히 拒絶하고 閑日月을 질기고 잇다고 한다 그래도 그가 가진 例의 氣慨는 뜸뜸이 表現되여 往訪者에게 對하야 如左한 時局談을 하엿다고 한다 『世界各國의 關稅障壁은 날마다 놉파지고 人類의 大多數는 塗炭에 빠졋다 또 現在 日本이 中國을 노리고 잇지마는 이것은 一種의 畸形的 現象에 不過한 것이오 結局 日本이 中國의 領土를 分割하면 分割할사록 中國의 彈力은 더 强하여지고 日本의 支配은 그 自國內에서는 解弛되면서 財政上 政治上으로 不安을 增大하야 自滅의 길을 밟게 될 셈이라고』 하면서 隱然中 큰 抱負가 잇는 것과 가튼 態度를 暗示하엿다 寫眞은 泰山의 馮氏(左端)

西班牙內閣 레氏의 下命

【聯合마드릿드十一日發】 八日 總辭職한 西班牙內閣의 後를 이어 今日 急進派首領『레루』氏가 組閣의 命을 바다 임이 新閣員名簿를 『자모라』大統領에게 提出하얏다

朝鮮新聞社屋上棟

同業朝鮮新聞社에서는 그 동안 社屋을 新築中이든바 基礎工事가 다 되야 十二日午後四時부터 盛大한 上棟式을 擧行하엿다한다

坪內訳 シェークスピヤ全集

イキモツカセヌオモシロサ

世界で一番面白い講談本。花も實もある人情本。買はねば損の大全集

馬鹿に高尚なもの、むつかしいものと思つたら大間違ひ……カナさへ讀めれば誰にもわかる。讀みさへすれば必ず面白い。一度讀んだら一生忘れられず、幾度讀んでも面白く讀めば讀む程爲になる本です。

男性よりも御婦人方へ

主婦の友社長曰く 日本の家庭に備へて人間教養の資とすべきもの……一家の娘の爲に一つと私の爲に一つと是非とも欲しい……

與謝野晶子先生曰く 私は多くの子供たちのために全部讀み揃へてやりたい。特に凡ての婦人に必ずシェークスピヤが讀まれることを祈つてやまない。これは現代男女の常識であるべきだと思ふからです。

直木三十五先生曰く 世界中で一番多く讀まれた物は聖書とシェークスピヤだ。どちらをとるかと云へば自分はシェークスピヤをとる。面白くて爲になるからである。

子供も年寄も喜ぶ面白さ

子供には話して聞かせよ……

野間講談社長曰く 外國文學の感じは全然しない……文學の興味と人間學の教訓を兼ね備へたものとしてこれ以上のものはない

市川左團次丈曰く 開かしたら芝居を見てゐるやうに面白いと云つた。それほどシェークスピヤは人間的である。いづれの階級でも、年齢の多少に關せず、各自に準じて興味あるのはシェークスピヤの芝居である。

馬場恒吾先生曰く 私が學生の時、母や妹にシェークスピヤを讀んで

金持も無産大衆も

金はなくとも心は金持……

德永直先生曰く ぼくらプロレタリヤ作家は過去の偉大な作家の遺産を全力あげて吸收しなければならぬ時期に到達した。不幸にしてわが國には過去に大作家を持つてゐない。特にこれから成長しなければならぬプロレタリヤにとつてこの全集は必ず讀まねばならぬ。私は眞先に申込んだ。

一冊五十錢

中央公論社 振替東京三四番

事變紀念日期하야 滿洲國顚覆陰謀

南京政府長期抗日策의裡面

調査만一個月所要

【聯合新京十二日發】 만주국경무당국에서는 지난팔월십일일 봉천성장하현대고산(奉天省莊河縣大孤山)에서만주국와방점(瓦房店)국경 경찰대소도대장(小島隊長)왕경사(王警士)를쏘아죽이고다라나라한범인

△山東省登州府蓬萊縣出生中華民國陸軍中校遼寧軍事特務委員姜長謙(二八)

△山東省登州府龍口縣出生大連沙河口居住中華民國陸軍中校遼寧軍事特務委員孫振東(三二)

의두명을 체포하야 엄중히심문한결과 그자백에의하야약일개월동안 조사한결과 근일에이르러, 군사특무위원을전위분자로삼고 남경정부의 철저한장기항일(長期抗日) 반만운동(反滿運動)을 하라든 계획전체와 만주사변 이주년을기회로 거사하랴하든중대한계획이 전부드러나게되얏다 경찰당국은 각지가총동원하야 전만주에퍼저잇는 반만항일분자를전체적으로 검거하기에 몰두하든바이미 국경경찰대원을쏘아죽인범인의자백으로 판명된남경정부의 반만항일공작(反滿抗日工作)의대계획은다음과갓다

一、국내의 공산군을 토벌하고 무장을 정돈한후 일본에대하야선전을포고할것(장개석안)

二、공산、국민량당이 화합일치하야 거국일치로 일본에대하라(왕정위안)

三、즉시개전(풍옥상안)

그리고 군사특무위원회는 이지도리론에의하야 선전파의 공작에종사하엿다한다

軍事特務委員내여 密計授受타發覺

今春부터繼續活動

중화민국 특군중교로 료녕성군사특무위원으로 암중활약을하든 강장겸은(姜長謙)은 만주사변이일어나기전후하야 당취오(唐聚五)의부하로 또손진동(孫振東)은 봉천대남관(大南關)경찰서 순경으로서근무하면서 남경과 만주각지에잇는동지와 련락하야 만주국의전복을 계획하여왓는데 써마츰 강장겸의친척인 양전협(楊錢俠)이라는 사람으로부터이번에전만주 각처에군사특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지를모아서 만주사변 긔념일을기하야 적극적으로 항일공작을 도모하고잇슴으로 곳오라는지령을접하고 손(孫)과가치 영구(營口)에서 배로상해를거처 남경(南京)으로가서 양(楊)소장과회견하고 군사특무위원의 임무사명에대한 훈시를밧고 위임장을바든후 다시 동지삽십넝과가티주경윤(朱慶潤)의용군총사령의위임장을밧고로동자로변장한다음에 본년사월말산동성(山東省)경주의배편으로 오월칠일안동(安東)에상륙하야 그곳○○혁명군위원회문약호(文若虎)박문호(朴文號)등과련락하야중귀관총 여섯대경긔관총 원대군비약간의 보급을 바더가지고장하현(莊河縣)에잠입하야리춘윤(李春潤)리자영(李子榮)류경문(劉景文)류전매(劉錢梅)등과밀접한련락을 취하고 일만군경당국의긔밀을 남경정부에 첩보하는중 마츰팔월십일 손 남경정부대표동(董)위원이 만주에와서대고산(大孤山)에서 지령을 바듬일에 배로대고산의대만자(大灣子)에상륙하여 다음날십일일에 회견추격을바다 소도경장(小島警長)왕경사(王警士)의 두명을 사살하고 도주하려하엿으나 만흔수를당치못하고체포되엿다

暗號로連絡

군사특무위원회(軍事特務委員會)의 공작에변행하야 혹은만주국관리로서 정부부내에 잠입하며 혹은교사로서 학교내에잠입하야 내부로부터 반만항일의 긔운을 양성하려고 한것으로이미판명된것만도 상당한수에 달한다 그리하야 그들은상인으로 변장하고 남경(南京) 북평(北平) 만주국내각지동지와련락하여 파괴공작에 종사한자는실로 그수가 상상이상이라한다 그들의 련락방법은 처음으로만날때에는 집안에서 인사하는방법을가지고 서로동지이것을 확인한후에 위임장을 보이고부호를가지고 말하고련락을 할동신에는 무엇이나 암호를사용하얏다 한다

甲乙丙三班으로 各自의特務使命

班員의大部分은舊中國官吏로 滿洲國內情况에通曉

군사특무위원회위원을갑을병세반에난호아

甲班任務

갑반은 재만각토병(土兵)의 두령과 조선인공산당과 련락을취하야 권력으로 소란공작을할것

乙班任務

을반은 일반군대의 배청으로

一、특히병력의편성무긔의배치 행동을 탐사하야 남경정부에 보고할것과 항에만주국 내에 잇는 동지와련락할것

二、일반경찰 긔관에 대한내정과 만주국경찰긔관내에 잠입한동지와의 련락을 취하야청보의 수집과선전을 마터할것

丙班任務

一、병반은 만주국 각행정긔관의청경과 일만관리의 내부행정을 내청하야 관리로서 잠입한동지와 련락을취하야 세포에확대를도모할것

二、중등학교 이상의 남녀학생과련락하야 이와가든 긔관내에잠입토록하야 남경대표의교사와 급공산당계의 교사와서로 련락하야 학생간에서반만항일사상을 배양토록할것

三、일만각긔관의 시설과 민심수량의 수단을 조사할과항에일반지방주민의 일만군에대한감정의 경향을 탐사보고할것

이밧게도 갑반은 무긔의밀수 동지의잠입에편리를 취하기 위하야삼각지구(三角地區)와

逮捕된十一名

各地에서分區工作

체포된 강손량명은 갑반에속하는데 그들과가치 갑반원으로만주국내에 잠입한자는 다음과갓다한다

性名	年令	工作地區
黃顯達	(三五)	奉天
黃顯琳	(二〇)	莊河
千小千	(三八)	安東
黃宇街	(三一)	不明
劉小校	(三〇)	吉林省
依鶴山	(三五)	本溪湖
王文祥	(三五)	通化
宋文華	(三二)	奉天
田吉榮	(三二)	海龍

初次에百餘名派送

日中戰爭을目標로破壞工作

日滿國困憊케할目的

강(姜)손(孫)량명의자백에의하면 남경정부는종래의 의용군조직이일만군경의토벌로이하야점차세력손실의 추세에이름에따라서 새로군사특무위원회(軍事特務委員會)를조직하고 만주국의사정에 정통한자를 위원으로임명하야 전만주각지에 파견하야 소란분자를확대강화케 하야 만주국전폭의 적극적 공작에종사하도록하엿다

처음차파견대 백여명은 오류월동안 다음과가튼 모든임무를하도록하야 각지에잠입케하엿다

一、위원은서로 련락하야 죽엄을 도라보지안코 권력으로직무에 종사할것

二、위원은 의용군을 지휘하야 만주국의 소란을꾀하고 일만량국으로하여금 피폐곤비하도록파괴공작을할것

三、일중전쟁을 목표로서 그준비행동으로 만주국내에 인심을수란할것

이라고자백하엿다즉

南京政府의 三大對滿策

그리하야 반만항일운동은 전면적으로 전개되여가는데 그근원에잇서서는 그들은 누구나일중전쟁(日中戰爭)을 확신하고 이를 선동하여 정부부내에서는 삼안에 열심히주창되여 토의하는중

青年會主催●本社後援 第五回全朝鮮團體柔道

九月末日에開催할터

中央YMCA體育部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의 第五回全朝鮮團體柔道大會는九月三十日(土)午後二時부터 青年會運動室에서 開催케된바 規定事項은다음과갓다

◇注意事項◇

一 參加資格＝學校及私設道場等으로創設滿一年以上된 永續性이有한團體로 그資格은本會에서認定함

一 人員及選手＝人員은各團體五名式(後補二名)으로參加할團體게서認定한者 (段外者에限함)

一 勝負의方法 紅白試合으로 本大會審判規則에依함 (蹴面技를禁함)

一 申請期日＝九月二十九日午後三時까지

一 抽籤日時＝九月廿九日午後

一 申請場所＝本會舘內

◇大會綱領◇

一 本大會는柔道의技能을向上케하며 柔道의根本精神을發揮함으로目的함

一 本大會는 朝鮮柔道界의團體優勝權을決定함

一 本大會는 最後優勝團體에게 本會에서制定한 優勝旗를授與함

◇大會規定◇

一 審判은最終으로함

二 本大會의試合時間은五分間으로하되大將은七分間으로함

三 勝負는『單判』(一本)으로만定하고『折半』(技有)는一人에限하야有効함 萬若雙方大將이『비임』이될때에는 雙方에서代表一名式 選拔하야此兩者로 勝負를決할때까지 試合케하되一合의時間은 七分間으로함

四 本大會審判用語는下와如함 『메여치기』『누르기』『조르기』『석기』『한관』『절반』『비임』『종잇스면비임』『고만』

五 試合順序는抽籤順에依함

六 抽籤의結果相對가 無한者는勝者로함

七 團體應援은 勿論이어니와 個人으로도應援을一切不許함

八 本大會에서指定한 時間內에出場치아니한團은 棄權으로認定함 (但審判員及相對方의承諾을得한時는此限에不在함)

九 本大會의綱領● 規定及審判의命令에違反하는時는 退場을命하는事도有함

十 本規定에記載치아니한事項은慣例와審判會의決議에依함

大同江에서열린 全鮮水上競技經過

水道橋—大同橋間遠泳新記錄

【平壤】 關西體育會主催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開催되엿든 第三回全朝鮮水上競技大會의成績은다음과갓흔바 三千百米大同江縱斷競技에잇서서 本大會記錄 三十六分을 六分間이나 短縮하여 金化善君以下五着까지가 全部新記錄으로入賞한것은 큰收穫이엇다 水速이 빠르고 水溫寒冷하엿든 만콤 勿論正規의『풀』에서 의記錄과는 對照할바못된다

◇競技決勝戰績◇

【自由型】

▲五十米決勝＝△一着 高贊輔(水童俱) 三十五秒 △二着尹仲楨(水童俱) △三着魯仁鳳(水童俱)

▲百米決勝＝△一着高贊輔(水童俱) 一分十七秒 △二着金公璇(元山) △三着魯仁鳳(水童俱)

▲二百米決勝＝△一着 千元奇(水童俱) 三分五十七秒△二着 鮮于均(水童俱)

▲四百米決勝＝△一着 金化善(平壤) 七分二十八秒△二着崔炳澤(水童俱)

▲八百米決勝＝△一着 金化善(平壤) 十四分五十六秒二△二着 崔承鉉(水童俱)

【平泳】

▲百米決勝＝△一着 呂仕德(平壤) 一分三十七秒△二着 崔承鉉(水童俱)

▲二百米決勝＝△一着 金化善(平壤) 三分三十八秒△二着 呂在德(平壤)

【背泳】

▲百米決勝＝△一着 高贊輔(水童俱) 一分三十七秒 △二着 金公璇(元山)

【大同江縱斷遠泳】

▲三千百米＝△一着 金化善(平壤) 三十分△二着 崔承鉉(水童俱) 三十分三十秒 △三着呂仕德(平壤)卅一分 △四着金奉洙 (平壤)卅一分卅二秒△五着 千元奇(水童俱)卅一分卅三秒(以上本大會新記錄)

西日本自轉車選手權大會에 朝鮮代表로出場하엿든 嚴貴錫 韓公楨 曹泳一選手는大會終了後東京——京城間五百里를自轉車로 走破하기로되엿다嚴君은五千米競走에 斷然優勝하엿스며韓君은一萬米에 六着으로入賞되엿다 三選手가歸京하는九月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는 歡迎自轉車大會를 開催한다고한다 (種目은一千五千一萬米)

京畿庭球豫選 咸·魯組優勝

第九回 朝鮮神競 京畿道庭球豫選은 十日午前九時半京城運動場에서行한바 結局仁川 咸炳文• 魯炳翼組가 優勝하엿다

【準決勝戰】

○仁川{成炳文 魯炳翼 4—2 鐵州{韓勝振 李正用 ×

○仁川{坂東 朴龍植 4—2 開城{李善完 吳光植 ×

【決勝戰】

○仁川{成炳文 魯炳翼 4—0 仁川{坂東 朴龍植 ×

早大名遊擊手 三原選手辭退

早大의큰損失

【電通東京電話】 十一日午後六時半早稻田大學野球部大下監督은 練習을맛치고 部員全部를戶塚球場에 召集하고東京六大學『리—그』의花形選手 三原遊擊手는 胸病으로同部를退任한다는것을 發表하엿다 『씨—슨』의優勝候補早稻으로부터三原選手를 일케됨은 稻의큰損失일뿐아니라 一般『팬』의失望을사고잇는바 外部에發表는胸病이原因이아니고 戀愛問題로 辭任케한것이라한다

英選手同志戰인 全米庭球決勝

【電通포오레스트•힐스』九日發】 全米庭球選手權大會 準決勝試合은 英國의强豪『페리—』『스토엘』을『아워모리』는『구로포웨트•힐스』를 各各『스트레드』로擊破하엿슴으로 決勝戰은英國選手同志의對戰으로舉行케되엿다한다

嚴·韓·曺選手 東京…京城間乘破

來二十九日歡迎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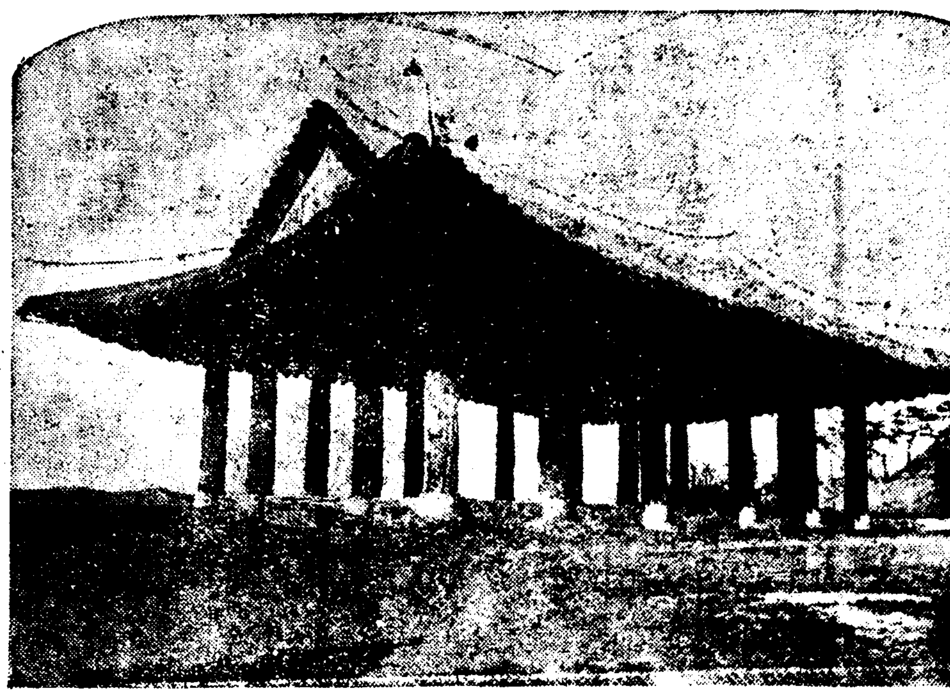
이번甲子園에서 열닌大每主催

和龍에武裝共黨 自衛團이再襲中

【間島特電】 십일 오후아홉시경에 회녕 고령진(高嶺鎭)부근두만강대안화룡현(和龍縣)사무사(西茂社)관사동(寬沙洞)에무장한 공산당원이십륙명이 나타나서 부근민가에서 식료품을징수하야먹으면서 그곳에 근거를두고 엇더한행동을 하랴한다는 정보를듯고 자위단(自衛團)십수명이 현장으로습격하엿스나 공산당원의 무장이 든든함을 보고모다 겁이나서 도라왓슴으로 령사관 경찰서에서는 응원대를 조직하여가지고 십일일 아츰열시에 재차습격을 하고자출발하얏다 이번관사동에 나타난공산당원은 모다 장총을지고 무장이든든하야 격렬한충돌이잇스리라고예상된다

金剛路復舊

지난번 수해로말미암아 불통중에잇든 금강산사동차 탄중도로말휘리(末輝里)온정리(溫井里)간은십일일에이르러복구되엿다



一江水滄滄한데一

「양덕(陽德)맹산(孟山)」물으는 물이 부벽루(浮碧樓)로 감돌아든다는「양산도」노래의일은넘어나 유명하다 금수강산평양의 생명은 모란봉과 대동강이하곳 모인 한폭그림에잇다하면 청류벽(淸流壁) 송악절벽우에 올라안즌밀대(乙密臺)의 날어가는듯한 가세와 모란봉미혜안오하게 좌청한부벽루를 에여노코는 풍경의 운치를 더차즐길이업슬것이다 그런데십이일 모진비에 부벽루가 한모퉁이 문허저녯날의모습을 일헛다 긔성팔경(箕城八景)의 하나로 부벽완월(浮碧玩月)은 네로부터유명햇다 대동강과 릉라도(綾羅島)를 건너 동편의들에솟는 달구경은 녯날판찰사들의 누리든영화(榮華)의 일마이엇다 오늘은 번산한 자동차소리와 뒤덥는유람객으로 녯날의우아한 정조는업나 할지언정 발아래 두대질벽밋흐로 용용히 대동강수가 흘으는날까지 누구나부벽루에 다시금발을 멈추게될것이니 커녀 노음이 강상에떠러지며 영명사(永明寺) 만종이 울릴때 부벽루의 시적정취는한층더하는것이다

부벽루가 창건되기는 약일천년전그곳 영명사의 남헌흥상인(南軒興上人)의창건한것으로그동만여러차례 중수도하여 오늘에미츤것이 이번에 비루문허젓다는것은 앗가운일이다

一浮碧樓는頹落一

農民은주린다리

小作人激增又增 七年間十三萬戶

三南의沃野忠南道內의趨勢

『뎀포』速한退嬰相

【大田】 조선의농촌은어느곳을 물론하고나 날노피폐하야 가는것이 오늘의 현상이어니와 더욱충청도와、가치봉건적잔재세력이 농후한곳에의래재래인의지주 게급이칭얏한 이후로의머지주는 주러만가고 외래인지주는늘어갈뿐아니라소작인 게급과외래인대지주는 날마다늘어가고 토착한지주와 중산게급은나날이몰락하는현상이다 충청남도에서 그일례를 보건대소화원년도에는 대지주가 팔백팔호 소지주가사천 이백구십일호이요 자작농이 일만오천칠십이인 소작겸자작농이 륙만륙백팔십일호 소작인이 구만륙천칠백팔십일호 화전민이 일백륙십이호박게아니되든것이 소화칠년도에와서는 대지주가 격증하야일본인과 조선인을 합하야일천일백칠십팔호이요 소지주가삼천일백 팔십팔호 자작농이일만사천오백 팔십팔호 소작겸자작농이 사만륙천 사백사십륙호 소작인이 십삼만 사천구백십이호 화전민이삼백사호이라는 놀날만한비교통계를보이다

扶餘兩青年檢擧

檄文事件關係인듯

【大田支局電話】 충남도경찰부에서는 수일래로 비밀리에 활동중이더니 십일일에 고등과동진(桐鎭)경부가형사 머물거느리고 부여(扶餘) 홍산(鴻山)방면에출장하얏다가 십이일 아츰에몰아왓는데 그지방에서 장창선(張昌善)장수천(張壽天)두청년을검거하여다가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사건의내용은 비밀에부침으로 자세히 알수업스나얼마전 부여격문사건 관게인듯하다고한다

五一五陸軍 十九日言渡

제일사단서

【聯合東京電話】 해군측과민간측보다압서 십리를종료한 오일오사건(五•一五事件)의 륙군측 판결언도일자에 대하여서는 서촌재판장(西村裁判長)이하가 협의중이든바 오는 십구일로결정하엿다 당일은 제일사단군법회의법정에서 오전십시 개정하야 직시서촌재판장의 판결언도가잇슬터이데 일룹로 팔개년구형을한후이며 해군측의 준렬한구형에 잇슨후인만큼 매우주목된다

府立順化院 來十五日落成式

경성부립순화원(府立順化院)의 개축제일기공사는 일간씃나고환자도 인제부터 수용하게되얏슴으로 오는십오일 관민삼백여명을 초대하고 락성식을거행하기로되엿다

近畿五個所에 町洞會를組織

경기도에서는 일간도내 삽부경성、인천、개성(京城、仁川、開城)과수원 영등포(水原、永登浦)량읍에다가 정회(町會)와동회(洞會)를도제(道制)로발표시행 하려고 방금도지방과에서 립안중이라는데 그내용을 듯건대정과동에 총대(總代)보총대를 두고그아래회계원 평의원 약간명을 두어 소속관청과의 련락과기타사회개량사업등에관여식히리라고한다

貯金通帳失禮•

동모조씨의 결국경찰에

한집에 가치잇는 두부장사족기속에서 저금통장을 훔치어돈이십원을차저썻다는혐의로동대문서에잡힌 두부장사가잇다 그는 경기개풍군(開豊郡)에두고현재숭이동(崇二洞)일백십륙번지에사는김창근(金昌根)(二四)이라고한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弱한低氣壓이西朝鮮과北滿에잇서北海道의高氣壓은本海를넘어山東으로퍼지고잇다 南朝鮮은흐리고其他는비가온다

十一日最高 二九、九

同 最低 一七、三

十二日正午 二一、五

優生學協會發起

民族社會의將來를도라보아

十四日千代田구락부서

우생학(優生學)을 연구실행코저하는단체의 탄생은 조선에잇서서는 처음되는일이다 생리학(生理學)과 사회학(社會學)의 긔초를 가진우생운동은 약오십여년전 영국프란씨스、골톤이란 학자가 제창한이래 구미각국은 물론동양에서도 일본등 문명국에서는 어느곳에서나 열심으로 육체와 정신의건전한 민족을길러내이기에 힘쓰고잇다 조선에서도 우생운동을 해가 느즌것을 늣기고 이번독일의학박사 리갑수(李甲秀)씨가주동이되어의학계교육계 기타일반 유지동다수가 망라되어「조선우생협회」를조직키로하고 오는십사일 오후세시부터 남대문통천대전(千代田)구락부에서 발기인총회를열기로되엿다 회의사업으로는 비우생학적 사례에 관한조사 우생학적 리론과 실제응용에 관한서구 일반민중에게 우생운동의 정신과 우생학적지식을 보급식히기위한 강습회강연회등의 개최잡지발간 아동보호와 결혼의학동에 관한상의 동으로 간단히말하면 조혼악이 폐나어 잘오자는뜻깁흔 민족사회의 큰사업이다 그려고회의창립을 보는대로금월중에 우선협회의 피로를위하야 강연회를개최할터이라한다

晩時의嘆 李甲秀氏談

협회발긔인의학박사 리갑수(李甲秀)씨는 협회창립에대하여 아래와가티 그필요를말하엿다 우생운동이란것은 문명한민족으로서는 당연히 하엿서야 할것인데 조선서는느즌감이 만소이다 쉽게말하자면 일반생활도 중작물을위하야 개량하면 개량을 잘할수잇는것과마찬가지로 사람도우선결혼에잇서서 건강한사람을 택하고 근친결혼을 피한다든가기타여러가지로 써우수한아희를나어길으도록하면 한민족크게는인류사회의행복을증진할수잇는것입니다 이것은커다란협회운동으로 우리사회에서도하로밧비이르켜야할바로이번에각방면인사를망라하여협회를창립하게되것입니다

現代科學의精髓 梅毒 胎毒 沃素療法

六○六號、水銀等의不備를補하고、最新醫學과數十年經驗의精華인新沃素等을融合한 最新沃素劑

시원히 석어 梅毒을排除하는

毒掃丸

重應用 毒掃丸의適應症 急性梅毒、慢性梅毒、神經梅毒、腦梅毒、潛伏梅毒、遺傳梅毒、梅毒性內臟疾患、胎毒、가래치、疳瘡、惡性여드름、梅毒性류마치스、梅毒性眼病、冷毒。

(全國藥店에有)

普通用 藥價 五十錢•一圓

重症用 藥價 二圓•三圓•五圓 十圓•二十圓•三十圓•五十圓

小兒用 三十錢•一圓

重症用毒掃丸은新製品임으로萬若藥店에品切이면直接本舖로注文하시옵

本舖 東京神田花房町二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番

山崎 瘡滅散

定價 三〇•五〇•八〇•一圓

時間短縮不應으로 同盟罷業斷行

圓峰鐵道工事人夫들이

警察、主謀三人檢擧

【[illegible]】지난삼일당지원봉리 철도(圓峰鐵道)「린넬」안에서 인부박영룡(朴永龍)이가운반차에 치여서 무참히 죽엇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것을 계긔로그공안에서 일하든 오십여명의로동자는 오일아침에 좌긔의조건

一、現在廢內에 四十메ㅣ돌ㅣ마다電燈一個式다것을五메ㅣ돌마나ㅣ個式(六十왓트써리)달아줄것

二、車前에잇는 齒止機를車後에달것

三、廢內瓦斯를吹出하는공푸레

四、現在賃金七十錢을八十錢으로引上할것

五、勞働時間十二時間을八時間으로할것

으로要求를 철도회사(鐵道會社)에 제출한바 동 회사에서는 다른조건은 승낙하나사、오의두조건은 거절함으로 로동자들은 전부 승낙 하지안는다고작업을 거절하바 경찰서에서는 선동자가잇지안흔가하여 동사 전우천(全友天)외세사람을인치취조중이라한다

强窃盜橫行으로 平壤府民不安

十一日은一日二件發生

警察까지失色狀態

【平壤】최근평양부내에는계속적으로도 강절도사건이 발생하여 일반부민으로하여금 공포를 늣기게하거니와 십일새벽 부내산수공립소학교(山手公小)직원실에 괴한가칩입하여 대담이도 회중전등까지 빗치워가면서 직원권부의 책상설합을 뒤지어현금십수원을절취하여가지고유리창을넘어 자최를감춘것을 오전멸시경에발견하엿고 동일오전한시에서다섯시까지사이에 사람의왕래가빈번한 대화정(大和町)사화(四化)화장품점에 괴한이침입하여 사가륙십여원의 물품을 절취해가지고 달아난것을역시아침에이르러서야발견하엿는데 권부가 방약무인의대담한행동에는경찰을더욱놀나게햇다

눈물로에저진 同情金來着

大阪阪南勞働會에서

◇本報馬山支局으로

【馬山】긴후다섯번이나휩쓴큰폭풍우재! 그참혹한 리재동포의현상을들은 멀리 일본대판에잇는 관남로동자자조회(阪南勞働者自助會)에서 작긔네의곤한한 생활도불고하고 피와땀으로모든동정금 륙십팔원 여를지난팔일 본보마산지국(本報馬山支局)을통하야긔재동포의게배부하야달라고 의뢰하야 왓다 본보 마산지국에서는 이를곳각리재민의게 배부하리라는바 비교적피해가 크다할지라도 교통기타의 편의로인하야 이중삼주의구호를 밧게된지방만은 제외하고특히 피해가 심하면서도 구제의손이 밋치지못한곳에 배부하야이역 로동동포가 보내온그존귀한본의에 어그러지지안케하리라한다

斷脂한烈婦

【馬山】지난날일경남함안군칠북면영동리(咸安郡漆北面榮東里)안종두(安鍾斗)상남철수(哲洙)(三二)의처김또묘(金且妙)(二六)는방금죽어가는 남편의생명을 구하려고 자긔무명지를씩허 피를 흘려넛코서 자기도따라죽는다고 적지안은소동을이르켜부근주민들까지 그처참한형상에 모다눈물을 흘리게한일이잇다 이제 그사정 은중병에걸녀 신고를하고 잇든중 평소에도그처로와 간호방법에처의을일을완만안이라어동설한이라도 손수 어름을께트리고 물에들어가고기를구하는동가진 정성을다하야왓스나약석의효파가업시 지난일일 드듸여별명되자그갓처단지한것이라한다

慘狀을極한居昌水災의一面相 (×點는流失된枕流亭의基址)

井邑一帶農作物 平均二割減少

자칫하면굴머죽는다고

◇小作料酌量만渴望◇

【井邑】전북정읍군일대(井邑郡一帶)에는 지난번 폭풍우(暴風雨)로인하야 농작물(農作物)에피해가불소하야지금정도로보아서는 평균이할가량은 감소되리라는데 더욱이 금년에는 빗싼비료를 사용하야 근근히지어노코 결실만기다리고잇든차 그가치 되얏는데 만일에설상에가상(雪上架霜)격으로예다가소작료(小作料)까지가혹하게되면 할수업시 굴머죽을수 밧게업다고소작료를 제정할시에 각지주(地主)들의특별한참작이잇기만바라고잇다한다

尙州咸昌에서 秋繭共販開始

九月十日부터

【尙州】경북상주군에서는오는십일부터 아래와갓치 추잠견(秋蠶繭)공동판매를개시한다고한다

尙州販賣所 九月十三日부터

咸昌販賣所 同 十日부터

女丈夫單身으로 强盜를擊退

가슴에칼맛고생명위독

犯人尙未就縛

【木浦】지난십일오전세시이십오분경 목포부온금동(木浦府溫錦洞)일백십팔번지 정미업주복동(朱福童)의안해 김옥심(金玉心)(四二)의집에괴한일명이 침입하여 취침중인옥심을 모시두루막이로 얼굴을싸서붓들고 돈을내노으라고하엿다 옥심은 잠결에놀나 일어나서 돈이업서주지못하겟다고한즉 강도는 품에서 칼을빼여들고 위협하엿스나 옥심은원래긔질이 튼튼함으로 일어나반항하며 격투를시작하얏는데 그자는 옥심의 가삼을 세군데나찔럿섯다 그러나옥심은 죽을힘을다하여 그칼을쌔앗아서 도적을찌르려하든차에 도민은 아모것도쌔앗지못하고 도망하야나감으로 옥심은 뒤를추격하다가 문압에서 엎우러저고 려하는소리에 리웃집사람이 나와보고 이사실을 온금동파출소에 급보하얏더니 급보를접한 목포서에서는 서장이하 다수한경관이동원되야 각처로 수색중이나 아즉 범인은 체포하지못하엿다고한다 그리고옥심은 요지음자긔남편과 사이가조치못하여 남편된 주복동은외출한지 이십여일임으로 옥심은혼자 그러한흉변을당하엿다는데 참자가 나와 상반병원(常盤病院)에서 치료를밧고 잇다는바 의사의말에의하면생명에는위독하다고한다

朝陽農士學院 運動場設置計劃

創立三十週年紀念

同校校友會發起로

【沙里院】황해도봉산군만천면유정리(萬泉面柳亭里)에잇는조양농사학원(朝陽農士學院)은 본래광동의숙(光東義塾)으로창립되여 조양학교、조양보통학교로변하여오다가 현조양농사학원으로되기까지 창립후삼십년을 통하야 졸업생만이사백여명에 달한다하며 현재로서는 교명이 농사학원이니만치 일반농촌에 중심유일한 민간농촌교육긔관 이라고 볼수가잇다 그런데금년에삼십주년긔념을 마지하게되야 학교에는 학생들이 운동할만한운동장하나가업서 항상유감이든바 이번동교교우회에서는 모교에 운동장을설치하기로한후 방금일반의 동정을구한다고한다

高敞婦女團 綠肥를採取

麥農을共營코저

【高敞】전북고창군읍내(全北高敞郡邑內)에작년창립된 모양(牟陽)성남(城南)읍내(邑內)세부인단 이백여명의 가정부인들이 손에낫(鎌)을들고 록비채취에동원하야 방금 산뎸이가티싸엇는데 이것을가지고 금년가을부터 보리농사를 지으리라는바 당지에잇서 처음보는일인만큼 일반은매우칭송한다고한다

독갑의作戱

낫에는불이나고 밤에는돌이날러

含嫌者의분푸리?

【淸州】지난삼일청주군사주면 사창리(四州面司倉里) 한모(韓某)의집에서는 백주에 돌연이 집웅에불이 나서동리사람들이 게우진화식혓는바 그날밤에는 또다시무수한 돌이날려드러와월가족은 일대공포를 늣기엿다는데 전기한씨는 십여년동안이나 집달리사무를 취급하야왓슴으로 일반은자못원한의 소위인가? 귀신의소위인가? 여론이분분하다한다

農民講演會

來五日開講

【北倉】조선농민사주최농민지도자강도회 지방순회단(地方巡廻團)은 평남순천군천도교당에서 오는이십오일부터 개강하리라한다

第四次居昌水災 人命死傷卅餘名

物質損害로十餘萬圓

枕流亭은터도업서

【居昌】긔보=지난삼사량일의대호우로 인하야 경남거창지방에는 다대한손해를 입엇는바 그자세한조사에 의하면 사일오전세시에 거창유사이래로 처음보는대 홍수로수개소의 시내제방이 파괴되며 무서운홍수는 전시가를삼키여버리고말엇다한다 그때가 밤이니만치 일반시민은 불안과공포에 싸이여 다만아우성을치며 갈팡질팡할지음에 마침당국과 소방조원의 총동원으로 경계하든중 급격히 나리든비가 차차끈치기시작하야 일시위급은 면하얏스나 거창의명승지요 거창의역사를 음연히말하야주든시내 상동(上洞)침류정(枕流亭)은그러문조차 찻출수업스며 군수관사일부와수호의 민가정리(神院就亭里)에서는산이문을이르첫다하며 동군신원면과 어커서 일동을전멸하고 사망한 사팔명이나 내이며 참사가 잇섯다는데 며락피해는 다음과갓다고한다

▲死亡者七名 (趙前夏 趙炳夏 李碩伸 李貞順 李貴玉 朴熙淳 裡邦宇 朴三用 金俊伊) ▲重傷者二十六名 ▲家畜死傷四十二頭 ▲家屋流失三十四戶=四十八棟 ▲全壞一八戶=二三棟 ▲床上浸水一二一戶=一五八棟 ▲道路破損一、三三一米=四五個所 ▲道路流失埋沒六〇〇米=二七個所 ▲橋梁破損 二個所 ▲橋梁流失四個所 ▲堤防流失三六四米 破損七五米 ▲田畓埋沒流失四四七一畝 ▲浸水四七〇八畝 損害總額約一〇九、七八七圓

整理햇든社員 又復採用決定

兼二浦三菱製所

【兼二浦】선철업계(銑鐵業界)의 부진으로 작년이래 금춘까지 수차의 사원정리를단행한 겸이포 삼릉제철소(兼二浦三菱製鐵所)에서는 래십일월에 제강공장(製鋼工場)의부활을압두고・전정리사원을 다수채용키로 결정되엿다한다

잠자든牛商 六拾餘圓盜難

려주군북내면서원리(驪州郡北內面西院里)일백칠십륙번지 안복경(安福京)(三九)은 지난팔일곡수장에서 소를팔고 날이저무러 려인숙 리창식(李昌植)의집에 주인을정하고 옷을벗고자다가 엇던자에게 현금륙십오원삼십륙전이든 돈지갑을 절취당하얏는데 경찰은 목하범인을 수사중이라한다

待望의板橋普校 十月下旬에落成

天氣不順으로遲延돼

【伊川】강원도이천군판교공립보통학교(江原道伊川郡板橋公立普通學校)는이래십여년동안 두고면민들은 설치되기를 고대하고잇든중 지난삼월 이십ㄱ일부로인가되여 기공에 착수한지 이개월인바 거이락성이 되여가다예정은 구월하순에 락성할예정이엿든데 일긔의불순으로도시월하순에나 락성되리라는바 면민들은 하로밧비 락성되기를 기다리고잇다한다

江景橋初渡式

【江景】충남다경복경교외에 강경평야를 종한금강 지류하천공사로 인하야 가설되는강경대교(江景大橋)는재작년 삼월에긔공하야 총공비십오만 륙천원으로 금월중에 준공된다는데 지난구일 오후령시삼십분에 강경읍회의실에서 읍회를열고 오는시월 십일일로 도식(初渡式)을 거행하기로 결정하는동시에 그여흥도 성대히할모양이라는바 강경논산(江景論山)간의마라손급씨름대회 자전차 경기등을 시민유지의협찬으로만반준비하리라한다

運動競技

南朝鮮庭球戰

羅州軍이勝利

【羅州】긔보=전남남평에서 개최된 남평청구구락부 주최와 본보라주지국후원의 남선 개인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일오전구시부터 남평보통학교 운동장에서 대성황리에 거행하엿든데 당일모히은각지선수는 목포라주광주 화순 송정리등지에서 삼십팔의용사가 모혓든바최후의월계관은라주의패자(覇者) 최점수김일현조(崔點洙、金一鉉組)에련이승으로 도라간다한다

禮山支局主催 圍碁大會盛況

【禮山】본보례산지국주최로 지난십일 오전열시에 례산공회당에서 위긔(圍碁)대회를 예정 파가리게최하얏든바 당일 회원은예만원으로 성황리에 동일오후엿시에폐회하엿다하며임상자의씨명은아래와갓다

一等朴炳華 二等咸天永

三等李昭實

地方人事

▲崔明奎氏(瑞興公普訓導)는瑞興支局主催保健體操講習會指導部長으로熱中하든바今番海州第一公普로榮轉人事次九日本報瑞興支局來訪

▲崔錫燮氏 本月九日淸津府新岩洞自宅에서逝去

▲金東元氏(本社取締役)本月八日來黃本報宜川支局來訪

▲吳文煥氏(崇義學校敎務主任)本月十日本報宜川支局來訪

▲朴麟昌氏(鎭南浦警察署司法主任)平原警察署轉任人事次去九日本報鎭南浦支局來訪

▲金碩熙氏(本報醴泉支局顧問)星州方面旅行中去八日臨局

▲中島米太氏(前醴泉警察署長)義城警察署長轉勤人事次去六日本報醴泉支局來訪

▲湯淺久吉氏(醴泉警察署長)新任人事次去七日同上

▲金戊伯氏(醴泉公普訓導)新任人事次去八日同上

▲金晩榮氏(瑞興法院支廳書記)退職人事次九日本報瑞興支局來訪

▲金洪九氏(仁同公普訓導)洛東公普校轉勤人事次去九日本報倭館支局來訪

▲白浴龜氏(本報新義州支局長)新任人事次本報安東縣支局來訪

▲小山勳氏(瑞興小學校長)信川小學校로轉任人事次九日本報瑞興支局來訪

▲木村氏(瑞興法院支廳書記)海州地方法院轉任人事次九月本報瑞興支局來訪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黃州支局 位置 黃州郡邑內 支局長 李珍馨

圖們支局 位置 咸北南陽驛前 支局長 吳麟邦

謹告

圖們支局 記者兼總務 金光學 右新任함

統營支局 遠梁面分局長 金東烈 同記者 趙鏞根 巨濟島分局長 河宰模 光道面分局長 金永文 右新任함

瑞興支局 記者 張鳳鳴 右新任함

原州支局 文幕駐在記者 尹台鉉 右新任함

江景支局 總務兼記者 林鍾憲 記者 張斗煥 記者 尹容重 寫眞班 宋鼎斗 右新任함

淸津支局 寫眞班記者 朴秉鍵 右新任함

淸津支局 寫眞班記者 尹存重 右解任함

제일독 원조 조선세창갓 표박은 물세잇 눈손으로잡는대 도조금도 변치안 는것 특색입니다

錦正商標見本

仁川府支那町 直輸入販賣商 同福公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京城總發賣店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五一三番

산과・부인과 許信醫院 入院 診察 治療 晝夜 完備 隨時 京城安國洞一五五 電光四四九番

中西テント 京城驛前 電話本局二八四八番 振替京城二一〇七六番

조양구락 낙시제구 投網 吉備商會 永樂町二丁目 電話本局三一四番 振替京城四三三八番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電話光化門七六〇番 振替口座京城二〇五番 支店及出張所(京城南大門、東大門、西大門、本町、水原、開城、大田、永同、大邱、釜山、平壤、延安、平壤大和町)

▲月刊雜誌【科學朝鮮】九月增大號出來(定價十五錢) ▲鑛山測量製圖、鑛石鑑定分析、鑛業出願、水利水車堤防에關한設計 ▲發明特許、實用新案、意匠及商標登錄出願便法指導 ―其他圖書販賣― 京城公平洞一一九 電話(光化門)九四三 振替京城一八四六三 照會歡迎 發明學會

職業 日用品製造簡單히各地家庭全員이滋味잇고堅實하되는有益한救濟事業을獎勵할가장營業으로여러분의信賴되는大會社와取引希望하시는분은業書로相議하시요 大阪港區市岡通一 株式內外貿易商事會社

胃腸强壯劑 胃腸病에各種의療養도效업시아주困難한분은業書로申込하라 胃腸을健全히하며害업고身體肥滿되는妙藥의說明書를呈함 東京市麻布區三河臺町二四 小川藥院

물감 時勢表呈上 京城北米倉町一四六 合資會社共盛洋行 電話本局四七三三番 振替口座京城六四四九番

朝鮮劇場 九月九日낫부터 特別普通料金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눈물의名畵選選▽ 黃昏의女子 一九三三年度에머리카美人投票第一位當選된 名優 主演 눈물에뒤거리에서、二十年이란긴歲月을두고戀人을기다리는女性이잇섯스니、그의일홈은누구엇든가……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故鄉의노래 & 世界的歌手케드・스미스主演 九月十三日낫부터 毎日二回 낫一時밤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第一劇場 社會活劇 最後의命令 全七卷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映畵界의神人에밀・야닝스氏主演 朝鮮名畵 椿姬 全八卷 活劇 屠殺者 全八卷

中央館 九月十日(日曜)낫부터特別大公開 원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映畵 情熱의입술 若き血に燃ゆる頃 全拾二卷 さけぶ雷鳥 全十二卷 鐵路는빗난다

優美館 高飛世界荒し

빡터・크라ー무는日

『余의親友보ー르드위인氏는九十七의高齡에沒하다 氏가그가치長生한것은 純良한葡萄酒의芳香이咀嚼을돕고또生存그에對하는愉快함을 주엇기때문에라고

赤玉ポートワイン

포ー도와ー잉

世界屈指의純良포도酒

安州産業振興座談會 (三)

昭和水組와 登場問題

▲李永漢 昭和水利組合事務所가 安州에 잇게된다면은 엇덜가요

▲洪禹疇氏 안오는것보다는낫겟지요 오댓자무슨큰수는업겟지요

▲李永漢 一千五百萬圓의工事費를運用할三百餘名事務員을 가진 昭和水利組合事務所가 安州에잇게되면 그만큼裨益이아닐가요

▲洪禹疇 安州에事務所가된다 하야도 安州에만잇는것이안이요 燕湖面이나立石이나各各分散하여잇게될터이닛가요

▲李永漢 總本部인그곳에만이 駐在케되겟지요

▲洪禹疇 아직創立中이닛가엇더하다고 말할수업지요

▲李永漢 事務所를 安州로오게할方針은 講究해보섯나요

▲洪禹疇 新安州、平壤等地에서제각기運動하닛가?

▲李永漢 各地에서 運動하는만큼 安州에서도努力할必要가잇지안을가요? 羅東傑氏意向은?

▲羅東傑 무엇보다도 費用問題지요 누가돈을내임닛가?

▲洪禹疇 여러분이 社會에서일하면 우리들은機械로活動하지요

▲玄奎弘 安州에事務所가와서게되면 發展에滿意制가 됨니다그보다도鮮南滿와价川間을 貫通하는大鐵道敷設하지안으면 안됨니다

▲金秉奎 저는昭和水利組合에 對하야 根本的으로 反對합니다 첫재理由는 農民의收支는 돌보지안코 産米增殖을 말하며 米移出稅를 云云하니矛盾된政策이외다 堆肥를獎勵하면서도 伐草를禁하니 『되는대로』政策인지알수업소이다 實地에잇서서全朝鮮水利組合치고서 失敗치안은것이업는것이요 둘재 昭和水利組合區域인 燕湖面 立石面 新安州面等地의 五分之一은 沓(畓)으로 이미水畓이된곳이외다 三年만더잇스면全部水畓이될수잇는것을巨大한費用을들여 만들어가지고農民에게 負擔만크게할必要는업다는理由로씀외다

▲洪禹疇 富者에게는좋니지만 가난한사람에게는 利益이지요

▲李永漢 엇던點에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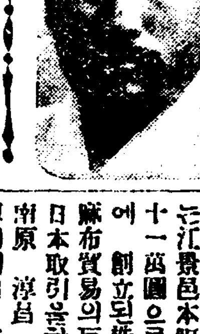
▲朴允秀 水利組合을만들어産米增殖을식여天코移出稅바드면自然히 조밥만먹든貧民도白飯을 먹게될터이닛가 (一同大笑)

▲李永漢 水利組合의根本的可否論은 그러커니와 現在된다고하는 同水利組合의事務室問題에對하야 安州人士의關心할바는무엇입니까

▲金秉奎 地主와 農民이自己가運轉하는 自立的組合이되여야할것이외다 맛도 地主의양 趙償으로地主와土地로掩保그러고 權利는 딴사람이잡으나 배주고 배속빌어먹는셈이지요 그러니至今이런問題는 어쳐해서 事務所問題에 燕湖、新安州와 安州가 合同하야만 漁夫의利를 보는者가 업게될것이요

▲李永漢 그方針은!

▲玄奎弘 地主가合하고 農民이合하야서 奮鬪하여야지요 安州에는 業利區域이 第一만흔곳이요 商工都市외다 結束하야 運動하면 容易한일입니다 그러나 運動하는사람이 잡고 從前과가티 道知事가 손을 잡고 흔들면 그만넘어가고 마는式에 誠意업시 하면 안됨니다 徹底히 强硬히 運動을하여야지요 地主가全部結束만하면 組合側에서도 大困難이지요 우둑하니안자잇다가는 第二의朝鮮面이될것밧게는 업스닛가요



▲李茂永 그러쿠니다 結束이第一이외다

▲羅東傑 요전公職者大會以後 중자고잇는듯합니다

▲李茂永 徹底하게하고잇지요안되면 脫退까지한다는決心이닛가

▲李永漢 안되면脫退한다는것만은不足하외다 되도록하여야지요 또事務所가安州에안되여다고 脫退한다면我田引水가 안되닛가 脫退한다고 其實任을뒤집어씌울터이외다

▲金秉奎 消魂에서는 安州에마음을두는 모양입되다

朝鮮人商工業에 盡力할誠意업다

昨日總會는滿洲視察報告뿐

◇京城商議의態度

京城商工會議所가 朝鮮人商工業者에對한何等의計劃과調査가 업슴에對한非難과 攻擊이 잇슴을鑑한 京城商議는過般役員會에서 朝鮮人中小商工業者의指導와 年末賣品附大賣出에對한援助其他의意見이 잇섯든것은 旣報한바어니와 昨十一日 午後二時로부터 議員總會를열고 工業協會主催의生産品展覽에對한補助 一千圓을可決하고 滿蒙經濟 滿洲博覽會視察과 日滿實業懇談會의經過報告를 賀田會頭以下七名의各議員이 個別的으로 各各報告하고 夜十一時에야散會하엿다 그러나 過般役員會에서 議論된朝鮮人商工業者의指導와年末賣品附大賣出等에對하야 毫末의말도全然업섯다고한다 이것으로보아서 京城商議가 朝鮮人商工業者에對하야 一向無誠意와 沒交涉의態度를 繼續하는것이라고 할수밧게 업다이에對하야 京城商議의賀田會頭는 從來로부터 朝鮮人商工業者를差別한일이업다고 어디外지反省할줄 不肯하는態度이다

未曾有의新高價인 倫敦金市勢

磅貨低落이有力原因

佛國은名目만金本位

『론돈』의金塊時勢가 磅貨의低落을伴하야 지난二日에六磅十二志三片이라는 未曾有의高價를나타내이고 多少反落하엿스나 依然六磅十片臺를保持하는高價가繼續되고잇다

×

法貨와의比率은 平價一磅에對하야 百二十四法二十一인데 지난六月에 八十五法六十三으로平價에對하야 三割五分의暴落이다 이와가티磅貨가떠러진理由는

▲外貨의季節的需要가생기고 또는英國政府가 磅貨를金本位에서 完全히分離케하야가지고 弗貨와步調를한가지로하야떠러트리라고하는것

▲歐羅巴大陸方面의 財産家들이 近來通貨에對하야信賴의맘을가지고 될수잇는대로金을가지고잇스라는傾向이만허가는것

等으로『론돈』의金時勢가 高價를 出現한것이다

×

그런데 最近『론돈』에서金一『온스』에對하야 七片以上의『푸레미암』이부터잇는바이것은『론돈』에서 金을手中에 너으라고하는사람은一『온스』의金塊에對하야 佛蘭西銀行에서 사는것보다 七片을 더주어야만사게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이러케 七片이나 더주고 사는것보다 佛蘭西에서 산다면七片의損을안볼것이다 그러나 實際에 잇서서는 그처럼 되지못한다 理論的으로는 巴里가 金의自由市場이며 따라서佛蘭西銀行에 가면 一키로(一五法은十分의九百品位의金 六五五미리그람이므로 純金一키로에對하야 一萬六千九百六十三法)에對하야 一六、九六三法의公定時勢로 制限이 업시金을 사서手中에너흘수가 잇다고생각할것이다

×

그러나 첫재로 佛蘭西銀行의金賣却이 最低限度 二十一萬五千法으로 되어잇서 平價로 한번에 一萬七千二百圓이 아니면 팔지안는다 다음에는 어디外지 賣却을固執하는境遇에 이것이 巴里市中銀行이면 佛蘭西銀行에게 壓迫을밧어銀行의營業이 不便케되고 또個人일께에는 拒絕치못하지만勸告中止케하는것이常例이다이러한方法으로 金貨를안내어놋는까닭에 론돈에서 七片의푸레미암을 붙어서라도 사게되는것이다

×

요새는 東京의對英爲替가一志二片臺를 恢復할듯한 底强의勢를 示함에不過한保勢이며十二日朝鮮銀行爲替建値는 一志一片八分七로 이亦是 保勢의거름이다

米國産金賣價

【華盛頓十一日發】 米國大藏省은十一日產金賣價를如左히公表하얏다(一온스) 二十九弗十仙

米棉高

【電通紐育十一日發】 十一日의米棉市場은賣注文이增加하야 顯著히上伸을示하야二十乃至三十포인트(日貨換算一圓五錢)高로大引되엇다

中國棉輸入 十萬俵豫想

【電通東京電話】 印棉不買決議의實行에依하야 今後紡績業者는中國埃及土耳其棉을 相當數量輸入하지안으면 안될狀態인데 今年은中國棉의作況이非常히良好한一方 宋子文의棉麥借款에依하야 米棉의古棉이繼續中國에流入될形跡이잇서 中國棉의低落이豫想되는 狀態임에鑑하야 今年下半期의中國棉輸入은 十萬俵로豫想된다한다

鮮南、慶一兩行 近間合同假調印

鮮南、慶一銀行의 合同問題는 目下總督府財務局의調査終了와 共히當事者를 總督府에招致하야具體的協議를하기로되엇는데 十二日午前鮮南銀行頭取小倉武之助氏가 出府하야懇談한바의 잇고近間假調印키에至하리라한다

外國爲替管理法 滿洲에施行

十二日閣議서決定

【聯合東京電話】 關東洲와滿洲附屬地에 外國爲替管理法을 施行할勅令은十二日의 閣議에서決定하엿는데 施行期日은關係省의 官制改正準備를한뒤十月下旬에될모양이라고한다

米粟輸移出入 八月上旬狀況

九月上旬米粟輸移出入高는如左하다 (單位石)

	上旬	累計
▲米 輸出	四、四八	四、四八
移出	九八、六八〇	[illegible]
輸入	四五三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粟 移入	三、九六	[illegible]
輸入	一〇、〇六	[illegible]

對日貿易入超 三百三十四萬圓

◇一月以後累計◇

八月中朝鮮對日本貿易槪算은如左하다 (單位千圓)

	今年	增(前年比)
移出	三三、七九九	[illegible]
移入	三八、〇六四	[illegible]
計	五〇、八六三	[illegible]
輸入超過	五、二六五	

一月以降累計는如左하다

	今年	增(前年比)
移出	一九九、七九九	[illegible]
移入	二〇三、〇五三	[illegible]
計	四〇三、八五三	[illegible]
輸入超過	三、三四四	

穀聯要求에 同盟會서回答

穀物聯合會에서는 盟外船과의合流에努力中이든바 最近鮮航同盟會에對하야 一、現行運賃(六十圓)을盟外船(飯野汽船)과가티引下하든지 二、盟外船과合流하든지 三、穀聯合組合個別로盟外船과運賃契約하기를容認하든지

折衝하야合流成立에努力하것다는말외國商이잇서聯合會에서는近間幹事會를開하고對策을講究하리라한다

牛豚大市開催

水原邑家畜市場

水原郡農會에서는 來二十三日及二十八日兩日에亘하야水原邑家畜市場에서牛豚大市를開催하기로되엇는데同市場에는畜牛頭數二千八百頭中賣買頭數千六百餘頭此價格六萬三千二百三十五圓에達할모양으로近來에는珍貴한큰家畜市이라한다

吉会線縱走記 [13]

本社特派 金炯元 記

豆滿江건너서서

圖們東部線으로雄基港外지

눈에씌는阿吾地炭田

◇……◇

눈힌메 나린물이
서갈내 퍼젓는데
東으로 한갈내가
豆滿江 이라하네

豆滿江 새에두고
지경삼 멋해런고
間島벌 七十里에
회옷이 널려잇네

◇……◇

上三峯 南陽洞은
쓸쓸한 우리고장
江岸站 圖們市는
새로된 都市라네

쇠다리 노힌江에
칼소리 덜거덜거
달업는 그믐밤에
조각배 숨어가네

◇……◇

눈힌메 말이업고
豆滿江 흘너갈뿐
넷님은 자최업고
말듬만 풀풀뜻네

◇……◇

豆滿江노래한마듸를부르며江을건너기는 十九日午前八時頃으로써나는 間島땅을떠나게되앗다 아니 다시생각하면 新義州를떠나 鴨綠江을 건너서南滿으로 北滿으로 吉林의松花江을건너서 萬餘里의路程을더듬든滿洲와作別를告하게되앗다 滿洲에對하야는여러가지로感懷가깁다 그러나 나는여기서 더말할수가업다 그대신내가京城驛을떠나든 七月三十日밤 京義線列車中의 한가지이야기를紹介하랴한다 마진편결상에안즌 젊은洋人이 담배만피고잇다가 잠안자는나를보고 심심파적을하랴햇든지 무엇이라고 英語로 말을건넷다 나는 웃는것으로 대답을삼엇다 그는 미심한드시 Do you understand? 하며 알어듯엇느냐고다진다 나는 우스며 Yes, I have Two ears, but I have not a tongue for English 하고 우섯다 두귀는잇스나혀(舌)가업다는말이다 이야기는이것뿐이다 前後三週間을두고 눈으로滿洲를보앗고 귀로滿洲를들엇다 그러나 이제滿洲의양을떠남에臨하야 나는입(口)이잇서도더말할수가업고 붓이잇서도 더쓸수가업다

▽……△

江을건너니 朝鮮땅!山도그山이오 물로그물이엇만은 人間들은 여기를國境이라고부른다 稅關檢査를마치고 편한新作路로 暫時걸어간즉 國境의關門南陽洞이다 이곳은昨年四月外지도十七戶밧게안되든小部落이든것이 對岸圖們과함께急激한發展을하야 現在에는(五月末調査)五百二十一戶 二千四百七十名의人口를包容한市街地가되얏다 驛舍는朝鮮式瓦家로新築을마치엇스나 아즉使用하지안코 二等車一輛을半分하야驛事務所로쓰는것이 新線이라는 것을雄辯으로말하고잇다 午前八時四十分 上三峯쪽으로온列車는南陽을떠나北으로豆滿江을 거슬러올르기를시작하엿다 南陽은 더말할것도업거니와圖們도將來에 三十萬人口를容納할大都市를만드니 엇지느니하여도 朝鮮人에게는色酒家以外에發展할餘地가별이잇지안는것은 한심한일이다 더욱이 滿洲에서收容한가업서서 지금은 勞働貸金以外에 돈아라고는어더볼수가업다는것이다 이런생각각하는동안에 車는벌서 穩城을지나訓戎이라는데대엇다 괴상한驛名이다 넷날어느將軍이 여기서 오랑캐를무지젓다는말인가 무슨外討에訓戎인가 如何間訓戎은 對岸琿春과二十里사이를두고 豆滿江岸의一要津이라고한다 예서부터 農圃外지는 有名한慶源平野이니 豐凶을모르는 北境의穀倉이라고한다 新阿山을지나 七百四十米突이나된다는 此線中의最長턴넬=松鶴굴을지나면 江水는굽어지고 絕壁이奇妙하야 소문업는佳境이眼前에展開된다 阿吾地炭鑛은 누구의經營인지 沿線에埋藏된炭層이 一億六千萬噸에達한다함을듯고 景致를찻든나의눈은 둥글하여젓슴을 느끼다 午後二時 雄基驛到着圖們東部線의終點이다 此線은 南陽雄基間一四四粁로서 一九三一年十二月에 開通되얏는데西部線이 지난六月에야 겨우開通되얏슴으로 九月七日을期하야 全線의開通式을 雄基에서하기로되얏다 圖們線의全通과 敦圖線의正式開業에依하야 北滿과 朝鮮의經濟的動向은 果然엇더케될것인고

江景 著名商工業紹介

江景은舊浦三百年來의有數한商業地로 그面目이朝鮮三大市場에列하야 米穀의集散이만흐며 따러서巨商과 工場이不少함으로朝鮮人이 經營하는그商實한 멧곳을紹介코저한다

▲株式會社三益社 三益社는江景邑本町에잇는데 資本金十一萬圓으로 大正十二年五月에 創立된株式會社이다 從來麻布貿易의巨商으로 멀니中國日本取引을하고잇스며 原産地博川에서 直接購入을하야時季에따러서 一日賣上高六千餘圓에達하는적이잇섯고 平均一日九百五六十圓値는 販賣된다하며同社重役은 社長金弼洙 取締役吳治洙 徐相瑨 監査役金甯洙 梁鶴來 支配人田在鎰諸氏이다 昭和六年九月부터營業科目中朝鮮紙製造及都賣를너어가지고 이方面으로도活躍하는中인데 爲先朝鮮紙所産地全州 鎭安 茂朱等地에서購入하야 西北地方으로 安東縣外지輸出을 하고잇스며 製紙工場을 論山郡陽村面仁川里에新設하랴고 計劃을 進行한다는바 窓戶紙粉白紙見樣紙貫物紙胡尺紙類仙紙等을 取扱한다

▲丸大고무江景工場 지금은 釜山丸大고무의江景工場으로 內容이 多少改新한바잇스나同工場은本是靑年實業家金鍾國氏가着眼한것으로 木浦大榮고무의金明洙氏와 釜山丸大고무의李鳳九氏等이年六百萬足이需要되는湖南一帶에『고무』靴를製造配給할目的으로 資本金二十萬圓의 錦江『고무』株式會社를昭和七年五月에 創立하고商標『錦江』票『갈키』票角三票로外機械를 運轉하여오다가 今年四月에三和會에 加盟한後다시釜山丸大고무會社와 合同을하야現在二十九名의 男工과六十二名女工從業員十九名을合하야百十名의큰살님으로써 一日生產二千六百足을 平均내이고잇스며 同工場의役員及設備는如左하다

一、役員 工場長 金鍾國 支配人李榮雨 製造課長李洪植

一、設備 電氣動力 五十馬力 보이라一 一臺 蒸釜二臺 로一루 三臺 硬化『工場』五百

▲金敬植商店 江景에서는歷史가깁흔最古의 商店이며魚農의本殿이니 每年五六十萬圓의魚農賣買額은 거의이商店이獨點한것이라하야도 無關하다元山浦項濟州各地에서오는 明太靑魚若布海衣가 所產當節이면船運과 汽車便으로 每日數萬圓의水產物이 賣買되여가는것이다 吾人의掌中에 들어잇는江景水産物 商界에至으나조흔現象인中同商店은 店主金敬植氏가 自幼時로 刻苦精勵하야斯業에 從事하기 爾來四十年되어으로 經營하는것이다 資本金約七萬圓으로 中町大和橋通에서 營業하는바 茂朱錦山의全北一帶와 公州靑陽의 忠南全幅을販路의 主要地로하고店員二十七八名이 每日奔忙한中每市賣上高는 平均三千二三百圓이된다한다(續)

▲鍾路商會 中町通 三丁目에잇는 鍾路商會는 和洋百貨와 樂器及 紙文具類를 今年三月부터 經營하는 江景唯一의테바一트이니 吾人商界에한 자랑될만한것으로 一日賣上高는不過貳參拾圓으로 커듬의商店에比하야 엇마나 寒心할것인자통들은 現象이데同商會에서는近近 某日本人雜貨店을引受하야營業을 一層擴張하고 總資本金貳萬圓으로 增額한後近代化한『서비스』를 다하야吾人一切의 消費를配給하리라는바商會主는 三十未滿의青年實業家로銳氣滿滿한 李準榮氏이며店員또한 新女性으로接客에無限親切하며 商品仕入은大阪의優良品卸市場과 名古屋等地에서가저온다한다

外藥賣値引上

英獨火藥輸入元賣捌會社『마이트』朝鮮火藥兩社에서는 來十月價格更改期에『다이나마이트』一箱에五十錢 即二分引上을決定하얏는데 右는外國製品으로 從來倉庫渡의委託販賣形式이든것을 爲替關係로船側渡로改定한써문이라한다

早場新米에 五千萬圓融通

【商通東京電話】 北陸、東北、北海道의 早場新米에對하야 産業組合中央金庫로부터 五千萬圓을例年보다 三個月일즉九月부터低利資金融通에 開始코저決定하얏는데 農林省은此를繫資金이로하야今月末 預金部委員會의決定을待하야 繰上實施하고米穀資金 三千萬圓低資融通에借換코저 決定하야各府縣에右主旨를通牒하얏다

◇堂島前場情報

【商通大阪電】 今朝의小反撥은 率勢米價의 摘要審速하하게되엿슴과 政策期待人氣擡頭에 株式側의 援勢買에依함(高原因) 地場正米側東京側의採算系戾賣에對하야株式側은米價割低를 思하고蓄買한外에中東側東京側 朝鮮側이處分하얏다

各地正米

◇京城引戾 期米活躍에伴하야人氣恢復되고賣行도잇서 十錢引戾인㊀三等十九圓八十錢四等十九圓六十錢이엇다

◇仁川硬調 期米高와頻頻한不良으로作況念慮가擡頭되어 賣物이一段적어지고 大體注文薄에不拘하고 十錢硬勢를取하야㊀三等十九圓八十錢四等十九圓六十五錢이엇다

◇大邱頑强 期米頑强을보고買氣가잇슴과大阪의買物로市況이意外로頑强을呈하야㊀三等十九圓二十錢四等八圓八十錢으로十錢引締이엇다

◇釜山硬化 出廻二千叺의 日本期正米의好勢로日本側의假需要와小口實需買氣를刺戟하야 ㊀三等十九圓四十錢四等十九圓二十錢所에千八百九十四叺의取引이잇섯고十錢高이다

◇木浦反撥 當用은氣乘薄이오賣行依然히不活潑한데期米가恢復되엇슴으로品薄氣市勢는㊂三等二十圓五十錢 四等二十圓二十錢으로十錢反撥을演하얏다

◇群山奔騰 出廻三幡產地賣腰强硬인데다가現貨頑强하야期米高에刺戟되어人氣는二三十錢奔騰을滿하고㊂三等十九圓九十錢四等十九圓六十錢이엇다

◇鎭南浦伸惱 開花를알두고繼續하는霖雨에相當한被害가豫想되고 現히日本急騰을 移하얏스나高價警戒로買氣가업서 强含의程度로伸惱하야㊁三等二十圓二十錢四等二十圓唱이엇다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一五二〇	四〇高
鐘新	一二一一〇	三〇〇高
日產	一〇三〇〇	二九〇高
東新	一〇二三〇	一一〇高

大阪長期

株名 / 後寄 / 後引: 大株 同新, 鐘紡 同新 — [illegible]

東京短期東新 / 大阪短期 / 朝取短期 / 株式 十二日

(寄付 大引 高價 低價 — 朝新 鐘新 大新 東新 日產 日新 安取 拓新 等) [illegible]

朝取期米 十二日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朝取各限條合 / 朝鮮各地期米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釜山 等) [illegible]

大阪期米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 京城正米 / 大阪市中在米高 / 商品 十二日 / 大阪綿糸後引 / 大阪棉花後引 / 橫濱生糸後引 / 大阪人絹後引 / 大阪砂糖後引 / 京城綿糸布市勢 / 綿油沖値 / 鰯搾粕沖値 / 滿洲商況 / 金融 十二日 / 日本銀行券 / 日本金利 /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史話 雲峴宮의봄 83

琴童 作 / 芝山 畫

十一의五

『저 계획이 제일일줄 압니다』

이러케 말하면 얼굴에 날카로운 미소를 나타내인 것은 김병필(金炳弼)이엇다

김씨一문의 회의엿다

좌장ㅅ격으로 하옥 김좌근이 잇섯다 부원군 김문근은 몸이 편치안허 참석치 못하엿다 하옥의 양사자 김병긔며 김병학 김병국 김현근 김영근 생질 남병철모도 하좌석에모혓다

그들의 의논하는 소리가들리지 안흘만한 먼곳에 하인들이 지키고 잇섯다 가쪄히는 이一족 이외에는 얼신도 하지 못하게 하엿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리하권에 관한 의논을 하든 것이엇다

병학은 좀더 기다려 보자는 의견을 제출하엿다 어케 오늘의 일은 아니니 갑자기 서둘지 말자는 의견이엇다

그러나 거기 대하여 병필이 맹렬히 반대하엿다 오늘내일 밀두어 가다가 여차하는 날에는 영을 두드려도번복치 못할 일이니 의논이시작된 이긔회에 절말을 내자는것이 병필의 의견이엇다 리하권과 가쪄히 지나는친구 몃명을 금부로 잡아다가 독한 국문을 가한우에 그들이 토사하엿다는 구실로서리하권을 업시하여 버려서 화근을 미리 씨처 버리자는것이엇다

하옥은 이 의논에 자긔의 의견은 말하지 안헛다 얼굴에 호인다운 미소(이란 긴장회의에 잇서서도 하옥은 호인다운 미소를 결코 이저버리지 안코 나타내는것이엇나)를 띄고 잠자고 조카들의 격론을 듯고 잇섯다

병국이 병학의 편을 도와서 종 권권히 일을 진행사키는 편이 조켓다 하면 남병철은 병필의 의견에 찬청하여 즉시결행을 주장하엿다

이리하여 두가지의 의논이 서로 타협되지 못하고 그래단을 좌장 하옥에게 구하게가 되엿다

호인다운 미소로서 의논을 듯고 잇든 하옥은 자긔의양사자 병긔를 돌아 보앗다

『네 의견은 어떠냐?』

자긔의 아버지와 가치 먹먹히 돗고만 잇든 병긔가비로소 머리를 들엇다

『장래의 일이 어쪄케 될지는 지금은 미리 짐작할수가 업습니다 혹은 리하권이 그냥 잇더라도 아모 관계는 업게 될런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자미업는 일이 생길때가 잇게되면 어떠케습니까? 리하권을 업시햇다고 우리에게 불리한 일은 업슬테니 업시하여 해업고 그냥 두엇다가는 혹은 불리한 일이 생길지도모르는 리하권이 결딴해 버리는것이 조흘줄 생각합니다』

병긔의 의견은 병필에게가 담된것이엇다

이리하여 이좌석에서 왕족 리하권의 운명이 결정되엿다

그뒤에 다른 왕족들에 대하여도 그들은 물샐하여 보앗다 물샐하는 틈에는 홍선의 이야기도 나왓다 그러나 홍선의 이야기가 나온째는이척신一동은 그만 소리를 내여 우섯다 시청의 무뢰한… 승잘먹고 두권잘하고 생일ㅅ집 잘자저 다니는 홍선과장내의 국왕』과의 새에는 너무도 차야가 크기 써문이엇다

『홍선을 염겁하게 되면 자미이겟습니다』

『용상아패 막걸리ㅅ병을 가저다 노코……』

『정권에 투권판을 차려 노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리하여 종친들의 우에업중한검토의 눈을 못과잇는 김씨一문도 홍선에게는 감시의눈을 던질필요를 느끼지안흔것이엇다 아모리이롭은종친이라하나 홍선의 인격은그들의눈에는 너무도 비루하게 보엿습으로 종실의 강아지에게까지 경계의 눈을 부웃는김씨一문에서도 홍선군 리하응에게는 전혀 안심을 느끼고잇섯다 밋구넝으로 호박씨를 까는 홍선이즘은 집작하는 사람이 전무하엿다